

## 체 육

##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 임국선 (17기, 원광대)  
원광대학교 석좌교수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안보란 대내·외적으로부터 오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들을 정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도자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 구성원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안보상태가 굳건하게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동양의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의 사마법에서는 「天下雖安 忘戰必危」라고 하여 전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으며 세종대왕은 세종실록 1432년 10월 1일자에서 「편안한 때일수록 오히려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경계를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도리이다」라고 하여 평시에 안보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사 대비태세가 무너져서 외세의 침입에 의해 국가가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Tanisha M. Fazal이 쓴 「국가의 멸망(State Death)」에서 18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7개였던 나라가 1816~2000년대 사이에 66개의 국가가 멸망하여 사라졌고 그 중의 75%는 무력에 의해 멸망하였다고 한다.

냉엄한 역사의 심판이 말해 주듯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라들은 패망하여 사라져 가는 것이다. 영원한 제국이라 자랑하던 로마는 국론이 분열되고 사치향락에 빠지면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결국 멸망하였으며, 고대 중국의 역사상 최초로 인구 1억명을 넘어서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송나라도 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적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사려다가 비참하게 패망하여 사라졌으며, 1973년 휴전 당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적국인 월맹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앞서있던 월남도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국방의식이 나태하여 1975년 4월 30일,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국가적으로 대비태세가 소홀하여 결국은 적의 외침을 막아내지 못하고 뼈저린 역사적 아픔을 겪어야 했던 치욕의 역사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약 2,000여 년간에 930여회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니 거의 2내지 3년마다 한번 씩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셈이다.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략으로 40여 년간 국토가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쫓기는 짐승처럼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것도, 조선시대에 왜구의 침략으로 임진왜란 등과 같은 쓰라린 전란을 겪어야 했던 것도, 1910년 치욕스런 한일병탄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이후 36년간 쓰라린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도, 그리고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도 결국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끊임없는 당쟁과 세력다툼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군사 대비태세가 무너짐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자주 국방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과거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뼈아픈 반성이 없이는 보다 나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가 겪어야 했던 치욕의 역

사들은 모두 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방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지켜줄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몫이요, 역사적인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의 중요성에 반해서 학교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일각에서, 신문지상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섞인 지탄의 목소리들이 들린다. 특히 국론을 결집하고 국가이익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일부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국가관이 무너지고 안보의식이 해이해져서 국가차원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만의 당리당락에 빠져 편 가르기, 패당정치에 혈안이 된 모습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바치며 숭한 국난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지켜냈던 호국 영령들은 과연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두 눈 부릅뜨고 호통치는 소리가 두 귀에 찌렁찌렁,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듯하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